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3.371

JCCT 2024-5-43

## 중년기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Efficiency and Marital Satisfaction of Middle-Aged Couples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s-

남정희\*, 김진숙\*\*

Nam Jeong Hee\*, Kim Jin Sook\*\*

**요약** 본 연구는 중년기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이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파악하고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D시에 거주하는 중년기 부부 421명을 대상으로 변인에 관한 설문자료를 수집해 변인 간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는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중년기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이 결혼만족도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증진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중년기, 부부, 의사소통 효율성,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understand how the communication efficiency of middle-aged couples affects marriage satisfaction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To this end,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by collecting questionnaire data on the variables of 421 middle-aged couples living in D cit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communication efficiency, self-esteem, and marriage satisfaction of middle-aged couples had a positive relationship. Second,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age satisfaction was verified by the communication efficiency of middle-aged couple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an action plan to improve marriage satisfaction in the middle-aged part was suggested.

**Key words** : Middle age, couples, communication efficiency, self-esteem, and marital satisfaction

## 1. 서론

한 개인은 태어나 처음으로 가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 가족으로부터 서로 다른 성장 경험을 지닌 남녀가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또 다른 가족이 형성된다. 대가족을 이루며 살았던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뿐만 아니라 부부로만 형성된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다[1]. 과거에는 전통적인 결혼관이 지배적이었으며, 부부 간에 문제가 발생해도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수는 적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부부 간 갈등을 겪으면 이혼을 결정하는 부부의 수가 늘어나고

\*정회원 대구한의대학교 평생교육융합학과 박사수료(제1저자)  
\*\*정회원, 대구한의대학교 평생교육융합학과 교수(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3월 4일, 수정완료일: 2024년 4월 12일  
게재확정일: 2024년 4월 20일

Received: March 4, 2024 / Revised: April 12, 2024

Accepted: April 20, 2024

\*\*Corresponding Author: dohee613@hanmail.net

있는 추세이다. 갈등을 겪는 부부들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결혼생활을 용감하게 종료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방식은 높은 이혼율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혼인 건수는 191,690명이고 이혼 건수가 93,232명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의 경우 49.9세이고 여자의 경우 46.6세로 나타났다. 평균 초혼연령이 남자 33.7세, 여자가 31.3세로 이혼율이 높은 연령대는 대략 혼인 지속기간이 15년 이상인 중년 부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 이는 우리나라 중년 부부의 갈등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년기 부부들이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년 부부의 이혼 사유는 각각 달라도 가족의 유지를 저해하는 공통분모는 부부갈등이다. 이는 이혼 사유의 80%에 해당하며, 부동의 1순위이다[4]. 더욱이 부부갈등은 개인 차원의 문제뿐 아니라 가족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자녀들의 행동적, 정서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5]. 이러한 갈등은 별거나 이혼 등의 가족 위기나 해체로 이어져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건강한 가족 기능의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근원으로 작용하는 중년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초기에는 인구 사회학적 변인 중심이었으나 점차 부부 각자가 가진 개인의 내적 특성과 배우자 간의 상호작용 특성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6], 개인 내적 특성과 관련하여 부부 상호 간의 의사소통 효율성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부부간 의사소통 효율성은 결혼만족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은 친밀감과 신뢰성을 증진 시켜 행복한 결혼생활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갈등이 발생할 때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의사소통 효율성은 부부갈등의 근본적인 원인과 결혼생활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상호관계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 만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은 중요한 요인으로서 간주된다. [7]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부부관계에서 대처하는 능력 및 유연성의 차이나 애매함을 처리하는 능력 등

이 성장하여 자유를 향유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한다.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이 결혼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자아존중감은 자신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8].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자신을 인정받으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상대방을 이해하기 어려워 부부간에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9]. 또한,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가진 부부들은 결혼만족도가 낮으며 배우자에 대한 불평과 비난이 잦아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7].

의사소통 효율성은 중년기 부부의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고 증진 시킬 수 있으므로 부부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에 대해 자신 스스로가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사소통 효율성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7].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기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현대사회에서 사회 및 경제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년기 부부의 원만한 결혼생활이 삶의 질을 높여, 부부의 결혼생활을 건강하게 지속해 나가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D시에 거주하는 40세에서 65세 미만의 중년기 남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기술통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32.8%(138명), 여성이 67.2%(283명)의 비율을 보였다. 연령대는 50대가 42.5%(179명), 40대가 37.8%(159명), 60대 이상이 19.7%(83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가 58.9%(248명), 대학원이 13.1%(118명), 고등학교가 13.1%(55명)로 나타났다. 직업은 자영업이 21.1%(89명), 사무직이 20.2%(85명), 주부가 12.4%(52명), 기타가 11.6%(49명), 노무/기능직이

11.6%(49명), 교육직이 5.7%(24명), 농업/임업/어업이 2.4%(10명), 전문직이 4.3%(18명), 무직이 2.6%(11명), 경영인이 1.4%(6명)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가 37.8%(159명), 불교가 31.6%(133명), 기독교가 14.3%(60명), 천주교가 14.0%(59명), 기타가 1.9%(8명), 유교가 0.5%(2명)로 나타났다.

결혼 기간은 20년 초과~30년 이하가 39.4%(166명), 10년 초과~20년 이하가 25.7%(108명), 30년 초과가 25.2%(106명), 10년 이하가 9.7%(41명)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4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가 25.4%(107명), 600만원 초과가 24.5%(103명), 300만원 초과~400만원 이하가 15.9%(67명), 2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가 15.0%(63명), 50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가 11.6%(49명), 200만원 이하가 7.6%(32명)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 1) 독립변수: 의사소통 효율성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 효율성이란 부부간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부와 그렇지 못한 부부를 판별해 낼 수 있는 척도를 의미한다[10]. 그 측정 도구로써 [11]개발하고 [10]연구에서 활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의사소통 효율성의 척도는 긍정적 5문항과 부정적 10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형 척도로 정말 그렇다 4점, 가끔 그렇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10]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6$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34$ 이었다.

### 2) 종속변수: 결혼만족도

본 연구의 결혼만족도 도구는 [12]연구에서 활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결혼만족도 척도는 총 8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1점에서 5점의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12] 연구에서는 .94으로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792이었다.

### 3) 매개변수: 자아존중감

본 연구의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수용, 자기존중, 그리고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감정들을 의미한다[13]. 자아존중감은 [13]에 의해 개발된 자아존중감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전병재, 1974)하여 표준화시킨 설문지를 [14]연구에서 활용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의 신뢰도는 [14]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919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전체 Cronbach's  $\alpha$  값이 .818이고, 하위요인별 긍정적 자아존중감 Cronbach's  $\alpha$  값은 .841, 부정적 자아존중감 Cronbach's  $\alpha$  값은 .700이었다.

## 3. 자료수집

본 연구는 D시에 거주하는 중년기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9월 1일에서 2020년 11월 6일까지 진행되었다. 사전에 대면 설문 대상자들에게 설문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진행하였으며, 비대면의 방식은 구글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500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부적절한 설문지 79부를 제외한 421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중년기 부부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에 사용된 주요변인들의 경향과 정규성을 검토하고자 기술 통계량을 산출하였다. 둘째, 중년기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다. 셋째, 중년기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중년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의 수준과 상관관계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결혼만족도, 독립변수인 의사소통 효율성,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과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의사소통 효율성의 평균은 2.778(SD=.536)이었고,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4.022(SD=.450), 결혼만족도의 평균은 2.905(SD=.420)이었다. 각각의 연구 변수의 분포 파악을 위해 왜도와 첨도 통계량을 산출한 결과, 왜도의 절대값은 최소 .259에서 최대 .645까지의 범위에 위치했고, 첨도의 절대값은 최소 .639에서 최대 1.702까지의 범위에 위치해 있다. 왜도의 경우 절대값 3을 초과하지 않고, 첨도는 절대값 8 또는 10을 초과하지 않으면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15].

또한, 결혼만족도를 기준으로 독립변수인 의사소통 효율성과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서 각각의 변인들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년기 부부 의사소통 효율성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결혼만족도 간에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Table 1. Technical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항목	평균	의사소통 효율성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
의사소통 효율성	2.778	1		
자아존중감	4.022	.291***	1	
결혼만족도	2.905	.498***	.27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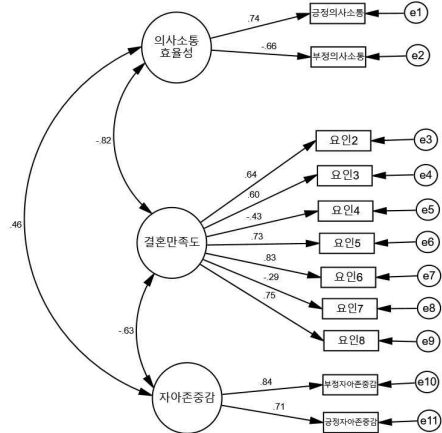
\*\*\* $p < .001$

#### 2. 중년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분석

##### 1) 모형적합도 분석

이 연구의 측정 변수들 중 삶의 질은 하위요인을 가지고 있는 잠재변수이기 때문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하위요인들이 잠재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초기모형에서는 모형의 적합도가 ( $\chi^2=199.792(df=51, p=.001)$ , TLI=.853, CFI=.887, RMSEA=.095) 부합되지 않아 MI 지수를 활용하여 결혼만족도 요인1를 제거 후 수정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chi^2=91.856(df=41, p=.001)$ , TLI=.943, CFI=.957, RMSEA=.062)로 나타나 연구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p < .05$ 에서 모형이 자료와 합치되었고 결과는 <표 2>, [그림 1]과 같다.



$\chi^2=91.856(df=41, p=.000)$ , TLI=.943, CFI=.957, RMSEA=.062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표준화 계수)

Figur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andardized Factor)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계수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ath coefficient Simulation Parameters

변수 간 경로			B	$\beta$	S.E	C.R
의사소통	→	긍정 의사소통	1	.741	.047	
	→	부정 의사소통	-.790	-.661	.084	-9.373***
자아존중감	→	긍정 자아존중감	1	.714	.047	
	→	부정 자아존중감	1.379	.843	.153	9.032***
결혼만족도	→	요인2	1	.642		
		요인3	1.068	.602	.114	9.355***
		요인4	-.718	-.428	.104	-6.923***
		요인5	1.101	.730	.101	10.944***
		요인6	-.357	.832	.075	-4.778***
		요인7	1.249	-.289	.104	12.021***
		요인8	1.131	.751	.101	11.187***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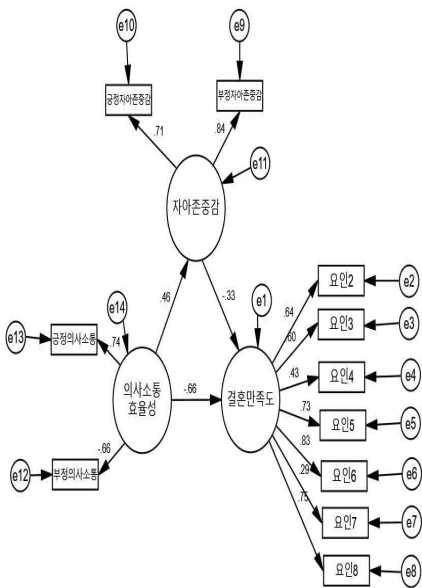
2) 중년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분석

중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 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고자 효과분해를 실시하였다. 확인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간접효과를 분석하였고 모든 통계분석은 95% 신뢰구간 ( $p < 0.5$ )에서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3>, <그림 2>와 같다.

표 3. 매개모형 분석결과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ath Coefficient

변수간 경로		B	$\beta$	S.E	C.R
의사소통 효율성	→ 자아존중감	.356	.714	.068	5.196***
자아존중감	→ 결혼만족도	-.473	-.661	.100	-4.568***
의사소통 효율성	→ 결혼만족도	-.743	.714	.110	-6.775***

\*\*\* $p < .001$



$\chi^2 = 91.856$  (df=41,  $p = .000$ ), TLI=943, CFI=957, RMSEA=.062

그림 2. 매개효과 분석(표준화 계수)

Figure 2. Mediation Effect Analysis (Standardized Factor)

<표 4>와 같이 중년기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총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beta = -.815$ ,  $p < .01$ )하였고,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beta = -.665$ ,  $p < .01$ ) 하였다. 간접효과 즉, 중년기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이 자아존중감에 매개되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 = -.151$ ,  $p < .01$ ). 이는 의사소통 효율성이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매개모형의 경로계수 효과 분해(표준화 계수)  
 Table 4. Break down the path coefficient effect of the mediating model (standardized coefficient)

경로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자아존중감 ---> 의사소통 효율성	.462**	.462**	
의사소통 효율성 ---> 결혼만족도	-.815**	-.665**	-.151*
자아존중감 ---> 결혼만족도	-.326*	-.326*	

위에서 제시된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만족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모형에 대해 인구 사회학적인 변수들을 통제한 모형에 대한 분석결과가 <그림 3>과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통제된 매개모형 역시 자료에 잘 부합하고 있었으며( $\chi^2 = 136.929$  (df=73,  $p = .000$ ), TLI=.928, CFI=.950, RMSEA=.052), 그 결과는 통제하지 않은 매개모형의 결과와 경로들의 구체적인 수치에 매우 근소한 차이가 있다는 것 외에는 모두 동일하였다. 통제 변수 배우자와의 대화시간, 각방 거처만 어떠한 경로에서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의 경로 추정치는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이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표 5. 매개모형 분석 결과  
 Table 5. Intermediary model analysis results

변수간 경로		B	$\beta$	S.E	C.R
의사소통 효율성	→ 자아존중감	.382	.492	.080	4.795***
자아존중감	→ 결혼만족도	-.466	-.325	.105	-4.422*
의사소통 효율성	→ 결혼만족도	-.761	-.685	.125	-6.113**

마지막으로 통제된 매개모형 경로계수의 효과분해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는 통제변수들의 경로는 제외하고 이론적 변수들의 주요 경로만 제시되어 있다. 의사소통 효율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총 효과는 -.81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직접 효과는 -.665(p=.0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접효과 즉, 의사소통 효율성의 효과가 자아존중감에 매개되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15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 효율성이 한 단위가 상승하면, 결혼만족도가 -.242만큼 높아짐을 의미하며, 또한 결혼만족도에 대한 의사소통 효율성의 영향력은 자아존중감에 전적으로 매개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6. 통제된 매개모형의 경로계수 효과 분해(표준화 계수)  
Table 6. Break down the path coefficient effect of the controlled mediating model (standardized coefficient)

경로	총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의사소통 효율성 ---> 자아존중감	.311**	.311**	
의사소통 효율성 ---> 결혼만족도	-1.013**	-.845**	-.242*
자아존중감 ---> 결혼만족도	-.456*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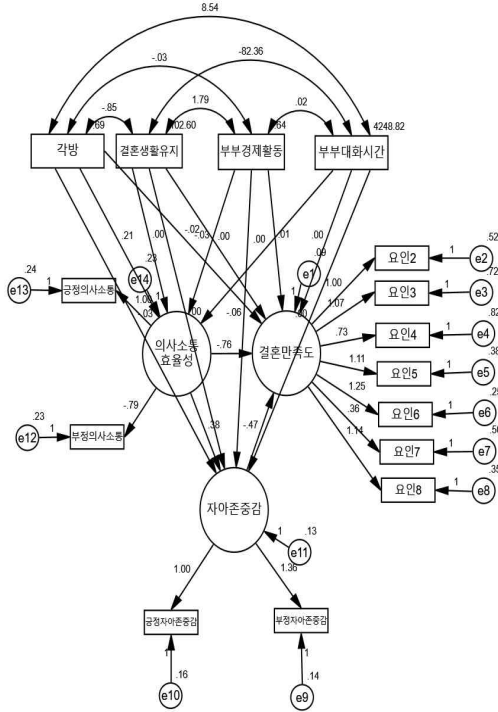
#### IV. 결론

중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중년기의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서 결혼만족도는 중년 부부의 지속 가능한 결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근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중년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만족도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논의는 미미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년부부 421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인식하는 의사소통 효율성,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에 대한 현황을 고찰하였다. 또한, 의사소통 효율성, 자아존중감 및 결혼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나아가 이 세 변수들 간의 매개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의사소통 효율성, 자아존중감, 그리고 결혼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요인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이 세 변수 간에는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측정변수 차원의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유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해석하면, 중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고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중년기 부부의 심리적 변인인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무엇보다 본 연구의 주된 발견은 결혼만족도에 대한 의사소통 효율성의 영향력이 자아존중감에 의하여 부분 매개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16][17]. 또한, 다문화 결혼여성을 대



$\chi^2=136.929(df=73, p=.000)$ , TLI=.928, CFI=.950,  
RMSEA=.052

그림 3. 매개효과 분석(통제변수 포함)  
Figure 3. Analyzing mediating effects (including control variables)

상으로 한 결혼만족도 연구결과에서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18].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로써 의사소통 효율성의 수준이 단선적으로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이 둘의 관계에 자아존중감과 같은 중년기 부부의 심리적 감정적 평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이해할 때 중년부부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중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하여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의사소통 효율성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로 작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 효율성이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중년기 부부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의사소통 및 전문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필요성이 요구된다.

둘째, 중년기 부부의 경우, 가부장적 권위주의는 여성에게 심리적 압박과 과중한 역할 부담으로 결혼생활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중년기 여성들의 내적 가치인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타격을 입으면 부부의 결혼생활이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중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 간 상호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중년기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만족도 간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으므로, 중년기 부부들이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실천적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의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중년기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정 지역의 연구대상자로 제한되어 있어서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현대사회의 평균수명 증가로 중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인식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References

- [1] S, N, Cho. (2006). "Challenge of the Aging Society and a New Vision for the Elderly Support -The Welfare Paradigm of Integrated Generations Beyond the Blood Relations-". *Social Science Research Journal*, Vol. 16, pp. 135-173. 2006 DOI: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88497>
- [2] H, K, Lee. "Positive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Koreans". *psychological science*, Vo. 16, No. 2, pp. 45-60, 1997.
- [3] National Statistical Office: <https://www.kostat.go.kr/ansk/>
- [4] Y, S, Jeon. *Korea is coming to an end*. The Business Books and Co. Ltd. 2018.
- [5] I, S, Han, C, Y, Hae-Chung Yang. ".Longitudinal Relationships among Marital Conflict, Parenting Behaviors, and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Vol. 26, No. 3, pp. 287-317. 2015.
- [6] J, Y, Lee, H, K, Shin. "The Relationship of Mindfulness, Marital Communication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in Married Woma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 12, No. 3, pp. 331-345, 2007. DOI:<https://doi.org/10.18205/kpa.2007.12.3.005>
- [7] Satir, V.(1972). *Peoplemaking*. Science and Behavior Books.
- [8] Y, H, Park, J, H, Ko. "The Effects of Self and Spouse's Self-esteem, Communication Pattern, and Conflict Coping Behaviors on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ocial and Personality* Vol. 19, No. 1, pp. 71-100, 2005. DOI: <https://doi.org/10.5392/JKCA.2017.17.07.236>
- [9] Kwon Jung-hye, and Chae Kyu-man.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marriage satisfaction test."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18, No. 1, pp. 123-139, 1999. DOI: <https://accesson.kr/kjcp/v.15/1/129/27237>
- [10] Y, N, Kim, "A Study on the Marital Communication of the Elderly",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2000.
- [11] Bienvenu Sr, M. J. (1970). Measurement of marital communication. *Family Coordinator*, pp. 26-31. DOI: <https://doi.org/10.2307/582142>
- [12] D, S, Kim, "Development and Effect of Marital Rel

- ationship Enhancement Program in Aged Couple.” College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2017.
- [13] Rosenberg, M.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easures package, Vol. 61, No. 52, p. 18, 1965. DOI: <https://doi.org/10.1037/t01038-000>
- [14] I, O, Park. “Effects of Communication with Parents on Self-Esteem in Delinquent and Normal Adolescents”,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Graduate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15] K, H, Jeong, S, H, Lee, “The Effect On Cyber Delinquency from Children Abuse from Par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Aggression”, A Study on Youth Welfare, Vol. 17, No. 4, pp.171-190, 2015. DOI: 10.19034/KAYW. 2015.17.4.08
- [16] S, R, Kim, “The Influence of Parents Attachment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on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cept and Self-differentiation”, Department of Child and Youth Studies Major in Youth Studies Th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2016.
- [17] E, J, Choi,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marital satisfaction perceived by middle-aged women: Through marital communication”, Graduate thesis for master’s degree at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2020.
- [18] H, S, Shin, “Impact of Communication Patterns the Women of Multicultural Family on Marital Satisfaction: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Graduate School, Daejeon University Gyeongbuk, Korea, 2020.